



문서번호 : 03-06-난민0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국제부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담당: 김기연 간사)
제 목 : 제3회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 보도자료
전송일자 : 2003년 6월 19일(목)
전송매수 : 표지포함 총5매

<보도자료>

제3회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

1. 매년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입니다. 본래 6월 20일은 아프리카단결기구(OAUA)가 1975년부터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여 오던 날로서, 국제적 난민보호 개념의 초석을 세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설립 50주년이 되던 지난 2001년을 기하여 '아프리카 난민의 날'을 '세계 난민의 날'로 확장하여 기념하기로 한 것입니다.
2. 제3회를 맞이하는 올해 세계 난민의 날의 주제는 '청년 난민(Refugee Youth)'입니다. 각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으로 기여할 준비가 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긍정적·적극적인 관점으로 난민들을 바라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3. 박해의 피난처로 한국을 택한 난민신청인과 난민들의 대다수가 주로 20대, 30대의 청년들인 상황에서 '청년 난민'이라는 주제는 한국사회에 많은 의미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난민보호'의 개념은 난민인정여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착하여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초지원을 제공하는 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고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민변을 비롯한 7개 단체는 오는 25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난민의 국제적 보호: 그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 사회가 통합적인 난민보호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밖에도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난민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5. 세계 난민의 날과 관련하여 취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별첨> 세계난민의 날 소개, 난민관련 통계자료, 심포지움 프로그램 등

제3회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 2003)

주제: 청년 난민(Refugee Youth: Building the Future)

**** 다음은 세계 난민의 날 홍보를 위해 UNHCR에서 발행한 Information Kit에서 발췌 정리한 내용입니다.**

'청년(Youth)'이라는 개념은 각 사회와 문화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올해 세계 난민의 날의 주제인 청년 난민은 13세에서 25세까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난민의 개념은 각 국의 난민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겠다.) UN난민고등판관실(UNHCR)의 보호대상이 되는 난민(Refugees), 난민신청인(Asylum seekers), 귀환자(Returnees),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중 약 35%인 7백만 명이 12세에서 24세 사이이다.

표 1. UNHCR의 보호대상 (2002년 1월 기준)

	난민	난민신청인	귀환자	실향민	계
아시아	5,770,300	33,100	49,200	2,968,000	8,820,700
아프리카	3,305,100	107,200	1,266,800	494,500	4,173,500
유럽	2,227,900	335,400	1,146,500	2,145,600	4,855,400
북아메리카	645,100	441,700	-	-	1,086,800
라틴아메리카	37,400	7,900	200	720,000	765,400
오세아니아	65,400	15,600	-	300	81,300
계	12,051,100	940,800	462,700	6,328,400	19,783,100

출처: UNHCR Statistical Yearbook 2001 (발행: UN난민고등판관실, 2002년 10월) <http://www.unhcr.ch>

보통 아동난민은 UNHCR을 비롯한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들의 많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적인 관심과 도움을 받고 있지만, 청소년 또는 청년 난민의 경우 관심대상에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는 이후 인생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만약 이들이 장래의 삶을 생산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이나 의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이는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을 낳는 씨앗이 될 것이다. 청년 난민의 요구는 여타 성인 난민의 요구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좀 더 다른 관점의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아동과 청년들은 대량의 인권침해 사태, 인종적·종교적 갈등, 내전 등에서 가장 많은 피해와 희생을 보고 있으며, 특히 청년 난민들은 이러한 무력 분쟁 속에서 강제징집, 강제노동,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십만 명 이상의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전쟁에 동원되어 직접 총을 들고 싸우고 있다. 강간, 강제 임신 등 성적 착취로 고통 받는 소녀와 젊은 여성들은 건강을 잃을 뿐 아니라 교육이나 직업선택의 기회도 박탈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년들은, 난민을 발생시키는 주요 상황들 속에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충격을 겪게 되며, 이후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다 할지라도 새로운 사회에서의 언어적, 문화적 혼란 등으로 많은 번민과 고민의 시간을 겪게 된다.

그러나 청년기는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창조적이고, 유연적이며, 건설적인 변화를 꿈꿀 수 있는 시기이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청년 난민들에게 보다 특별한 관심과 지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즉, 그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난민관련 통계자료

표 2. 주요 국가의 2001년 난민인정현황 비교(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신규신청	인정(A)*	인도적 지위(B)*	거부(C)*	인정율		쿼터난민
					난민지위(D)**	종합(E)***	
아시아							
일본	353	26	67	374	6%	20%	40
한국	39	1	-	5	17%	17%	-
유럽							
그리스	5,499	147	148	1,047	11%	22%	-
네덜란드	32,579	888	7,857	16,971	4%	34%	625
노르웨이	14,782	292	4,036	8,976	2%	33%	1,269
덴마크	5,200	2,010	3,087	6,194	18%	45%	534
독일	88,287	22,719	3,383	55,402	28%	32%	-
룩셈부르크	686	89	353	1,531	5%	22%	-
벨기에	24,549	1,157	-	4,062	22%	22%	-
스웨덴	23,515	307	6,538	16,238	1%	30%	1,089
스위스	20,633	3,431	19,934	17,549	8%	57%	-
스페인	9,489	314	266	1,989	12%	23%	-
슬로바키아	8,151	18	-	130	12%	12%	-
아일랜드	14,17	934	69	6,40	13%	13%	52
아이슬란드	52	-	1	18	0%	5%	23
영국	70,850	20,920	21,085	64,930	20%	39%	-
오스트리아	30,127	1,152	-	3,840	23%	23%	-
이탈리아	9,620	2,102	564	10,553	16%	20%	-
체코	18,087	83	-	7,033	1%	1%	-
터키	5,041	2,869	-	2,114	58%	58%	-
포르투갈	232	7	34	7	15%	85%	-
폴란드	4,506	291	-	2,860	9%	9%	-
프랑스	47,291	9,703	-	55,440	15%	15%	-
핀란드	1,651	4	809	646	0%	56%	739
헝가리	9,554	174	290	2,995	5%	13%	-
북아메리카							
캐나다	44,038	13,336	-	9,551	58%	58%	12,245
미국	59,432	28,304	-	41,868	40%	40%	68,426
라틴아메리카							
멕시코	415	142	-	166	46%	46%	-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1,601	502	-	2,556	17%	17%	763
호주	12,366	4,464	-	13,261	25%	25%	6,453

출처: UNHCR Statistical Yearbook 2001 (발행: UN난민고등판무관실, 2002년 10월) pp. 30-32, 50-53을 바탕으로 재구성

* 인정(A), 인도적 지위(B), 거부(C)는 각각 1차 심사 및 이의신청 결과 모두를 합한 수치

** 난민지위 인정율(D)=당해 종결사건(A+B+C)÷인정건수(A)

*** 종합 인정율(E)=당해 종결사건(A+B+C)÷ {인정건수(A)+인도적지위(B)}

**** 쿼터난민이란, 다른 나라에서 이미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을 위한 제3국 재정착 프로그램

표 3. 한국의 난민인정 현황(2003년 5월 현재) (출처: 법무부)

	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5
신청	176	5	2	44	12	26	4	48	32	33	10
허가	9	-	-	-	-	-	-	-	1	1	7
불허	58	4	1	1	8	26	4	4	9	-	-
철회	36	1	1	3	4	-	-	-	9	2	1
심사중	73										

* 22개국 176명: 아시아 72명, 중동 20명, 아프리카 84명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지움
“난민의 국제적 보호: 그 현황과 전망”

일시: 6월 25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관: 가톨릭대 법학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대 BK21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아시아재단,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서울사무소, 좋은 벗들, 피난처

사회: 김기연 (민변) / 동시통역 제공됨

13:30~14:00 등록

14:00~14:20 환영사/ 김홍신 (국회의원)

영상메시지/ 유재건 (국회의원), 홍세화 (한겨레신문 편집기획위원)

❖ Part1: 출판 설명회 (14:20~15:20)

『난민 보호: 국제난민법 이해』

발행: 국제의회연맹(IPU)&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14:20~14:30 출판 배경/ 제임스 코바르 (UNHCR 서울사무소 대표)

14:30~14:50 내용 소개/ 장복희 (가톨릭대학교 법경학부 교수)

14:50~15:20 "지난3년간의 한국생활을 돌아보며" / 테구 (협약난민)

15:20~15:30 휴식 Coffee break

❖ Part 2: 주제발표 및 토론 (15:30~18:00)

15:30~16:30

"위기에 처한 난민: 국제 난민보호상의 혼란" / 조엘 차니 (Refugees International 정책부의장)

발표자 소개: 스캇 슈나이더 (아시아 재단 서울사무소 대표)

토론자: 정인섭 (서울대 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내 외국인 난민을 중심으로

이승용 (좋은 벗들)- 북한 이탈주민을 중심으로

16:30~17:30 "한국의 난민보호제도: 그 개선과 전망" / 박찬운 (민변 난민법률지원위 위원장)

토론자: 김관준 (법무부 체류심사과), 제임스 코바르 (UNHCR 서울사무소 대표),

17:30~18:00 자유토론 및 정리

난민관련 국내 행사 정리

15(일)-17(화)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루드 루버스 한국 방문

19(목) 난민의 날 기념 및 아웅산 수치 석방 촉구를 위한 글로벌 액션 및 기자회견

주최: 나와우리, 아시아의 친구들, 피난처

- 오전 11시 한남동 미얀마 대사관 앞 기자회견

- 오후 3시 이후 아웅산 수치 석방 촉구 캠페인 및 촛불시위(명동)

20(금) 세계 난민의 날

출입국관리공무원 교육(난민 인정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

/ UNHCR 서울사무소 대표 제임스 코바르(James Kovar)

장소: 법무부 법무연수원

25(수)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지움 "난민의 국제적 보호: 그 현황과 전망"

주최: 기톨릭대 법학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시아재단, UNHCR 서울사무소, 좋은 벗들, 피난처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